2022

국내외 규제 및 시장동향 분석보고서

Vol. 06

KOTITI Testing & Research Institute 소비재인증사업본부

보고서 개요

본 보고서는 KOTITI시험연구원 소비재인증사업본부에서 발간하는 국내외 규제 및 시장동향 분석보고서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법규 변경사항 및 이슈사항 모니터링을 통하여 섬유 및 소비재 관련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KOTITI Testing & Research Institute

Contents

2022

06

소비재인증사업본부

1. 월간 주요 이슈

01.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 72만점 안전기준 미준수 –"가정의달" 대비 수입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05P

2. 국내 KC 관련 법령 및 이슈

01.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08P

3. 국내 규제 법령 및 이슈

01. 산업부, 국내 최초 메타패션 제작·출시 11P
02. 어린이 안전사고, 걸음마기(1~3세)에 가장 많이 발생 13P
03.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 사업 추진 15P

4. 해외 규제 법령 및 이슈

01. [미국] 유아를 위한 연방 안전 수면법 제정 18P
02. [호주] PVC 바닥재 시장 동향 19P
03. [콜롬비아] 콜롬비아 패션 산업 22P
04. [미국] 메타버스는 패션산업을 어떻게 바꿀까 24P

5. 부록

[KOTITI, 소식 안내]
01. 유니클로 시험기관 지정안내 28P

[KOTITI, 신규사업 안내]
01. 보호복 시험평가 29P
02. 섬유제품 미세먼지 차단성능 평가 30P
03. 3D 버츄얼 패션 서비스 31P
04. 반려동물제품 인증제도 32P
05. 방사선물질 제품인증 서비스 33P
06. 금속장신구 알레르기 안전인증제도 34P

2022

01 월간 주요 이슈

-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 72만점 안전기준 미준수

  –관세청 • 산업부, "가정의 달" 대비 수입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

월간 주요 이슈 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 5. 27.)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 72만점 안전기준 미준수

- 관세청 • 산업부, "가정의 달" 대비 수입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점을 적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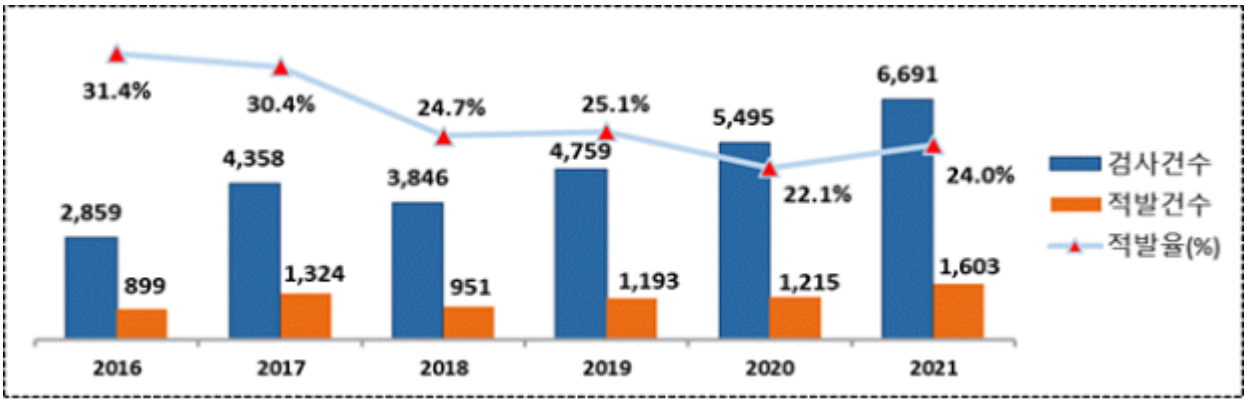
- 이번 집중검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완구, 스포츠용품 등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4.4~4.29, 4주간)를 함께 실시

  * 조사대상은 완구, 스포츠용품(삼륜차, 자전거 등), 미용기기용 전지, 전기찜질기 등 14개 품목 801건 177만점이며, 이 가운데 12개 품목 286건 72만점 적발

- **완구가 71만여 점(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지 1만점(22건), 운동용 안전모 2천점(11건)**으로 적발된 72만여 점 중 적발 사실이 경미한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한 후 통관되었으나, 그 외 분석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거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

-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16년 대비 7.4%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6년간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불법제품 적발률 동향]



- 국표원과 관세청은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참고] 가정의 달 대비 통관단계 부적합 적발 구분

구 분	품목명	집중검사 부적합 적발				조치 내용
		업체수 (수입)	모델수	건수	수량	
① 안전기준 부적합	전지(이·미용기기)	1	1	1	3,479	· 통관보류
	완구	1	1	1	360	· 반송폐기요청
	소 계	2	2	2	3,839	
② KC인증 미필	완구	56	88	114	417,622	· 통관보류
	어린이용 킥보드	4	2	5	424	
	승차용 안전모	4	5	5	392	
	전지(이·미용기기)	3	2	3	146	
	전지(전기마사지기)	4	5	5	101	
	운동용안전모	4	5	5	56	
	모발관리기	2	3	3	8	
	전지(전기청소기)	2	2	2	3	
	전기찜질기	1	1	1	1	
	소 계	80	113	143	418,753	
③ 표시위반	완구	19	27	36	136,392	· 통관보류
	전지(이·미용기기)	4	5	5	4,881	
	전지(전기청소기)	4	4	4	1,509	
	어린이용 자전거	2	2	2	551	
	운동용안전모	4	4	4	434	
	전지(전기마사지기)	2	2	2	105	
	승차용 안전모	5	9	11	23	
	모발관리기	1	2	2	8	
	유아용삼륜차	1	1	1	8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1	5	5	6	
	소 계	43	61	72	143,917	
④ 허위표시	완구	42	57	67	151,324	· 통관보류
	운동용안전모	2	2	2	1,204	
	소 계	44	59	69	152,528	
합 계		169	235	286	719,037	

비고) 적발되어 통관 보류된 제품들은 폐기, 반송되거나 인증미필 등을 보완 심사 후 통관 가능

2022

02 국내 KC 관련 법령 및 이슈

-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2022. 6.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공포 '22.2.3, 시행 8.4)에 따른 체계를 변경하고, 안전확인 재신고시 기존 번호의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 추진하였다.

- **개정 취지**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공포 '22.2.3, 시행 8.4)에 따른 체계를 변경하고, 안전확인 재신고시 기존 번호의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 추진

- **주요 내용**

– 안전확인 재신고시 기존 번호의 사용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

❖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주요사항 요약–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1, 2 (생 략) 3. "동일모델"이란 인증 또는 신고가 완료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써 법 제17조제3항,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모델구분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2 (생 략) 3. ——— 법 제22조제2항 ———
제8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등의 번호부여) (생 략) 〈신 설〉	제8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등의 번호부여) ① (현행 제8조와 같음) ②안전인증기관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에 대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신고확인증 번호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인증기관 및 시험 · 검사기관 관리) ①, ② (생 략) ③이에 참가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불만족결과를 산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숙련도평가 결과 불만족을 산출한 원인이 시험.검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22조제10항에 따라 추가지도점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안전인증기관 및 시험 · 검사기관 관리)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22조제11항 ———.
〈별표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적용범위	〈별표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적용범위

품목	적용범위
어린이용 킥보드	사용자가 근육의 힘으로 추진력을 얻는 킥보드 또는 전동으로 가는 킥보드에 적용 * 바퀴에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은 것, 연료를 사용하여 작동되는 것, 좌석이 있는 것은 제외

품목	적용범위
어린이용 킥보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 * ———

❖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부여방법

A	0	1	D	A	0	0	1	–	0	0	0	1	A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안전관리단계 구분코드
② 안전관리단계 구분별 품목 코드
③ 안전인증기관 구분코드
④ 어린이제품 제조업자 지역구분 코드
⑤ 제조공장의 일련번호
⑥ 연도별 끝자리 번호 1자리 숫자
⑦ 인증 또는 신고 순서의 일련번호
⑧ 인증서 재발급 식별코드

2022

03 국내 규제 법령 및 이슈

- 산업부, 국내 최초 메타패션 제작·출시
- 어린이 안전사고, 걸음마기(1~3세)에 가장 많이 발생
-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 사업 추진

산업부, 국내 최초 메타패션 제작·출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 5. 30.)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의 서비스 · 콘텐츠화 선도를 통해 패션 선진국으로 진입을 추진하고자 하며, 민간주도 패션기술 클러스터 조성 및 사업기획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5.30(월) **메타패션 제작 발표회**를 갖고, 오는 11월에 **30벌의 메타패션(디지털패션)을 출시**한다고 밝힘

– 메타패션은 패션기술*의 일종으로 현실에서는 옷감의 재질, 색감 등의 제약으로 실제 구현이 힘든 패션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넓게는 가상세계(메타버스) 상 아바타의 스킨도 포함됨

* 패션기술은 패션이 디지털 기술을 만나 전통적 패션을 넘어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내고 있는 영역으로 디지털 패션, 스마트 의류, 개인 맞춤형 패션 등을 포함

– 메타패션은 가상세계(메타버스)의 확산과 함께 시장규모가 커져 **2030년에 55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MZ(유엔)세대들이 메타패션을 친환경패션* 이자 XR(확장현실) 경험** 으로 보고 있어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됨

* 청바지 한 벌 제작에 물 7천리터가 소요되나, 메타패션은 디자이너가 마시는 카페라떼 8잔 소요

** 메타패션을 착장한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NFT 구매 및 가상세계(메타버스) 아바타 스킨 등 활용

- 메타패션은 섬유패션의 대표적인 "제조 서비스화" 분야로 **우리가 꼭 잡아야 할 대안 시장(블루오션)**임을 강조

– 가상세계(메타버스)상 아바타를 통해 디지털 의류를 입어보고 주문하면 바로 실물 옷을 제작, 배송하는 개인 맞춤형 패션시스템* 을 구현하면 우리가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

* 일명, 섬유패션의 D2A(Direct to Avatar) 기획-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무재고, Zero Waste가 가능해 섬유패션의 게임체인저로 인식됨

– 패션뿐 아니라 디지털에 강점이 있는 만큼 메타패션에서 국제적 브랜드를 창출하고 시장을 선점한다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의 염원인 **패션 선진국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산업혁명 시기별로 섬유패션의 주도 분야와 주도국이 변화 : 1차(방직, 英/佛/伊) → 2차(화섬, 美/獨) → 3차(패스트패션, 스페인/스웨덴/日) → 4차(메타패션, 한국기대)

– 메타패션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패션의 높은 부가가치*를 고려할 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부연함

* 통상 섬유(재료) 가격을 1이라 할 때 일반의류는 10~20, 명품브랜드는 200~500 수준

▪ 제작 발표회에 이어 산업부는 같은 장소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계적 수준의 패션기술 산학 협력 지구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기획단 출범식**을 개최

– 패션기술이 섬유패션의 미래라고 불리고 있으며 시장규모* 도 2030년경 천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

* 시장규모(억불) : (메타패션) '21년 130 → '30년 550, (스마트의류) '21년 23 → '26년 66, (개인맞춤형) '20년 19 → '26년 108, (가상피팅) '20년 30 → '28년 130

– 패션, 정보기술(IT), 문화 등 여러 요소를 융합해 동반 성장 효과를 창출하는 혁신형 산학 협력 지구를 조성해 나가되, '민간 주도의 투자와 정부의 규제완화 지원'이 핵심

▪ 산업부는 패션기술 산학 협력 지구 조성안이 9월경 수립되면 이를 토대로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대상 지자체를 선정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산학 협력 지구 구축사업에 착수**할 계획

[디자이너×유명인의 협업 메타패션 작품]

김보민 & 제시		
	〈주제 : 사람과 세상을 아름답게〉	
고태용 & 라비		
	〈주제 : 전통민화와 클래식의 만남〉	
황이슬 & 한선화		
	〈주제 : 역사, 시간 여행자(고구려, 조선)〉	

어린이 안전사고, 걸음마기(1~3세)에 가장 많이 발생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2. 5. 24.)

가정 내, 실외 등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최근 5년간(2017~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어린이 위해정보는 총 109,132건으로 팬데믹 이전에는 매년 24,000건 이상 수집되는 등 매년 15,000건 이상 접수

– 어린이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감소했으나 **가정 내, 실외 등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연도별 위해정보 접수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	25,699	24,097	24,971	18,494	15,871
전년대비 증감률	(14.0)	(△6.2)	(3.6)	(△25.9)	(△14.2)
병원 수집 건수	24,796	23,415	24,354	17,612	15,343

※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건수의 95% 이상이 병원에서 수집됨.

– **(발달단계별)** 최근 5년간 '걸음마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에도 '걸음마기'가 6,485건(40.9%)으로 가장 많았고, '학령기' 3,867건(24.3%), '유아기' 3,850건(24.3%), '영아기' 1,669건(10.5%) 순이었음.

[발달단계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취학전	영아기 (0세)	2,340 (9.1)	1,986 (8.2)	2,167 (8.7)	1,720 (9.3)	1,669 (10.5)
	걸음마기 (1~3세)	**12,186 (47.4)**	**11,678 (48.5)**	**11,495 (46.0)**	**7,933 (42.9)**	**6,485 (40.9)**
	유아기 (4~6세)	5,907 (23.0)	5,586 (23.2)	5,669 (22.7)	4,438 (24.0)	3,850 (24.3)
	소계	20,433 (79.5)	19,250 (79.9)	19,331 (77.4)	14,091 (76.2)	12,004 (75.7)

– **(품목)** 최근 5년간 '가구 및 가구설비', '건축/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공구', '스포츠 및 취미용품'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매년 유사한 추이로 나타남.

– 특히, '완구 및 게임용품'의 경우 2020년부터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에는 2,022건(12.7%)을 차지함.

[품목별 현황]

(단위 : 건, (%))

구분(대분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가구 및 가구설비	8,216	(32.0)	7,547	(31.3)	6,990	(28.0)	3,745	(20.3)	3,448	(21.7)
건축/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공구	4,495	(17.5)	4,389	(18.2)	4,334	(17.4)	3,934	(21.3)	3,205	(20.2)
스포츠 및 취미용품	3,093	(12.0)	2,680	(11.1)	3,673	(14.7)	2,809	(15.2)	2,613	(16.5)
완구 및 게임용품	1,881	(7.3)	1,937	(8.0)	2,473	(9.9)	2,478	(13.4)	2,022	(12.7)
건물, 시설 및 서비스	2,228	(8.7)	2,026	(8.4)	1,718	(6.9)	769	(4.2)	635	(4.0)

– **(원인별 상위 품목)** '영아기'(0세)의 경우 '추락'이 53.4%(9,882건 중 5,27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외의 연령에서는 '미끄러짐·넘어짐'이 1위를 차지함. '영아기'(0세)의 **'추락' 사고 품목으로는 '침대'**가 3,441건(6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파'** 500건(9.5%), **'유모차'** 264건(5.0%) 등의 순임.

– '미끄러짐·넘어짐'의 경우 발달단계별로 품목에 차이가 있었는데, '걸음마기'(1~3세)는 '목재마루재' 2,967건(22.0%), '비닐바닥재' 2,876건(21.3%),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2,324건(17.2%)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음.

– 반면, '유아기'(4~6세)는 '킥보드' 1,703건(20.4%),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1,257건(15.1%), '비닐바닥재' 957건(11.5%) 순이었으며, '학령기'(7~14세)는 '어린이 자전거' 2,048건(25.3%), '킥보드' 993건(12.3%),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664건(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위해원인별 상위품목(소분류) 현황(2017~2021년)]

(단위 : 건, %)

구분	영아기 (0세)	
추락 53.4% (9,882건 중 5,279건)	침대	
	3,441	(65.2)
	소파	
	500	(9.5)
	유모차	
	264	(5.0)

구분	걸음마기 (1~3세)		유아기 (4~6세)		학령기 (7~14세)	
미끄러짐·넘어짐*	목재마루재		킥보드		어린이 자전거	
	2,967	(22.0)	1,703	(20.4)	2,048	(25.3)
	비닐바닥재		석재 또는 타일바닥재		킥보드	
	2,876	(21.3)	1,257	(15.1)	993	(12.3)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비닐바닥재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2,324	(17.2)	957	(11.5)	664	(8.2)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 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 5. 30.)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구제 제도를 이용하고 싶으나 방법을 모르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상 상담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2년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 사업을 6.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무역구제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국내법에 따라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바로잡아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제소보다 피소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 우리나라는 세계 2위(464건) 반덤핑 피소국이나, 제소 건수는 세계 12위(152건)

– 산업부는 그간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구제 제도 활용 촉진 등을 위해 간담회,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우리 기업들이 **무역구제 제도 활용에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 및 반덤핑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요건검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산업부**는 해당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중소·중견기업들의 무역구제 제도 활용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사업 주요내용

① 무역구제 **신청절차 및 관련자료 등에 관한 기본 상담**을 지원

②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제소요건 사전검토 및 조사 신청 타당성**을 분석

③ 덤핑여부 판정을 위한 **해외시장* 조사비용**을 지원

  * 조사신청 전 덤핑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시장 조사가 필요

④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한 **무역구제 제도이용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소개도 진행**할 예정

- 동 사업의 수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3개 상의 네트워크** 및 주요 **15개 광역시·도별 대표 상의**를 중심으로 조사·상담지원 사업 홍보 및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활용 촉진을 유도하여 무역구제제도 활성화 기대 및 공정경쟁 지원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 사업 개요

▪ 추진 체계

– **(주관/컨설팅기관)** 대한상공회의소 / 로펌(세종, 화우), 회계법인(DKC, 리인타, ITC)

– **(협력기관)** 전국 73개 상의 네트워크 및 주요 15개 광역시·도별 대표 상의를 중심으로 컨설팅 홍보 및 협력 추진
  *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관련 주요 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 채널 가동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대기업 집단 제외) 및 협·단체

– **(지원금액)** 상담지원 신청 건당 최대 605만원 지원

– **(지원내용)** 해외시장 조사비용, 전문가 컨설팅 및 무역구제 제도소개 등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컨설팅 업체 선정 → 컨설팅 진행 → 컨설팅 보고서 제출 → 정산

▪ 세부 지원내용

항목	주요 내용	단가	지원비용
기본 컨설팅	·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의 소개(기본개념) · 한국내 반덤핑관세 부과 현황 설명 · 수입산으로 인한 피해현황의 전반적인 이해 · 기타 질의 응답 ※비대면 1시간 내외	25만원/건	건당 최대 605만원 지원
전문 컨설팅	**(1단계)** 무역구제 기본 컨설팅 [※대면 1일 수준] ·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의 소개 *기본개념, 신청절차, 진행절차, 활용방안 · 한국내 반덤핑관세 부과 현황 및 주요 특징 설명 · 수입산으로 인한 피해현황의 전반적인 파악 · 기타 필요 사항	250만원/건	
	(2단계) 예비타당성 준비 [※대면 1일 수준] · 수입물량, 수입단가 등을 통해 조사대상 국가 검토 ·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 국내산업 피해의 입증을 위한 준비자료 안내 *피해지표,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 ·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효익 검토 · 기타 필요 사항	250만원/건	
해외 조사	· 해외 현지 시장에 대한 세부 항목별 정보의 조사 및 제공 *수요/수출입/생산/경쟁 동향, 수입관세율, 소매가격/유통구조, 기타 등 총 8항목 중 보통 7가지 선택(15만원×7건)	105만원/건	

2022

04 해외 규제 법령 및 이슈

- [미국] 유아를 위한 연방 안전 수면법 제정
- [호주] PVC 바닥재 시장 동향
- [콜롬비아] 콜롬비아 패션 산업
- [미국] 메타버스는 패션산업을 어떻게 바꿀까

[미국] 유아를 위한 연방 안전 수면법 제정

CONGRESS GOV(2022. 5. 16.)

2022년 5월 16일, 경사진 유아용 침대 등 특정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안전 수면법이 제정하였다.

- 2022년 5월 16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유아용 침대 크립 범퍼, 경사진 요람 등 특정한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유아를 위한 연방 안전 수면법 제정

- 특정 유아용 제품은 경사가 10도 이상인 제품으로, 최대 1세 유아에게 수면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 판매 또는 설계된 것

- 크립 범퍼는 유아용 침대 측면에 대한 충격으로 인한 탑승자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침대의 측면을 덮거나, 탑승자가 패드를 포함한 어떠한 개구부에도 신체 일부가 끼이지 않도록 측면에 부분적으로 완전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된 모든 재료로 정의되며, 패딩되지 않은 메시 라이너는 제외

- 이 법률의 제정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제품은 제조일에 관계없이 「소비생활용품안전법」 제8조에 따른 금지위험물로 취급

[호주] PVC 바닥재 시장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2022. 5. 19.)

2021년 호주 바닥재 시장 소폭 하락, 코로나19 발 국내 건설경기 침체 영향 및 신축 주택 및 홈 레노베이션 수요 증가로 건축자재 및 바닥재 시장 점진적 성장세 보일 전망이다.

▪ 시장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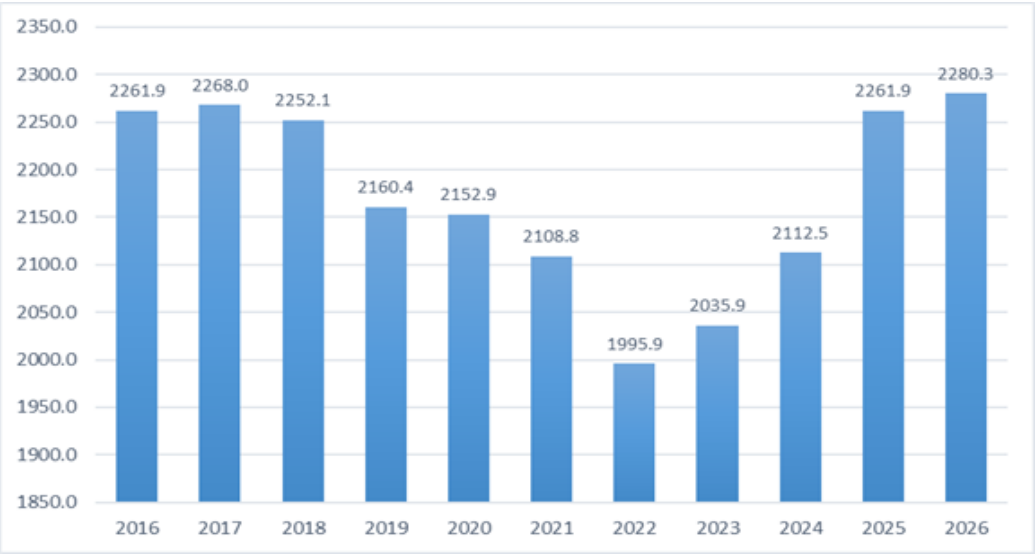
– 호주의 바닥재 소매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약 21억 달러(30억 호주달러)로 집계

– 코로나19로 건설 현장에서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며 지난해 호주 건설 산업 경기는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글로벌 물류 대란까지 더해지며 불안정한 수요와 공급으로 바닥재를 포함한 대부분의 건축 자재 시장 매출이 동반 하락

–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와 레노베이션 시장의 활성화로 향후 PVC 바닥재를 포함한 호주 바닥재 시장은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호주의 바닥재 소매 시장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주: 2022년 부 통계는 전망치, 5월 11일 기준 AU$1=US$0.7로 환산한 수치

※자료: IBIS World

- 2021년 기준 호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바닥재는 카페트로 전체 소매 시장의 48.7%를 차지
- 호주 주거지의 난방 시스템은 한국과 같은 온돌이 아닌 히터를 사용해 실내 온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바닥을 온기 있게 유지 할 수 하는 카페트의 수요가 높지만, 최근 지어진 신축 아파트나 주택에서는 PVC 또는 타일 바닥재를 많이 사용
- PVC 바닥재의 수요 증가와 함께 난방 효과와 인테리어의 기능을 모두 갖춘 매트(Mat)와 러그(Rug) 제품의 매출도 함께 늘고 있는 추세이며, 호주 바닥재 소매 시장에서 PVC 및 기타 바닥재 품목은 32.5%의 점유율을 차지
- 신규 주택의 가격 상승 및 오래된 주택의 보수, 인테리어 개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바닥재를 포함한 전반적인 건축자재 시장의 성장이 기대
- 시드니 유력 언론사 시드니 모닝 헤럴드(Sydney Morning Herald)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호주의 홈 레노베이션(Home Renovation) 부문 소비는 79억 달러(11억4천만 호주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연계 지원 정책인 홈 빌더 활성화 패키지(HomeBuilder stimulus package)와 재택 근무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홈 빌더 활성화 패키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축 및 건설 산업의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신축 주택 및 레노베이션의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진행
- 또한 지난해 시행된 대규모 락다운(Lockdown)으로 재택 근무 인력 41% 까지 대폭 증가하며, 사람들의 주거지 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과 수요 역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호주의 인테리어 및 건축 자재 시장은 점진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2022년 기대되는 PVC 바닥재 트렌드]

※ 자료: Polyflor

▪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 PVC 바닥재를 포함한 염화 비닐 폴리머 기반 바닥 및 천장 덮개 제품(HS Code 391810)의 수입 규모는 2021년 기준 2억5,996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9% 가량 상승했으며 최근 3년간 꾸준한 성장세

– 한국은 동 품목 대 호주 수출 2위 국가로 최근 3년 동안 완만한 성장을 보였으며, 1위 수출국인 중국(59.7%)에 이어 호주 수출 시장 19.4% 대의 점유율을 달성

[최근 3년 호주의 PVC 바닥재 포함, 염화 비닐 폴리머 바닥 및 천장 덮개(HS Code 391810) 수입 동향]

(단위 : 천 달러, %)

순위	국가	입액			시장 점유율			2020대비
		2019년	2022년	2021년	2019년	2022년	2021년	2021년 증감률
전체		181,774	211,473	259,961	100.00	100.00	100.00	22.93
1	중국	92,589	117,239	155,182	50.94	55.44	59.69	32.36
2	**한국**	**40,247**	**40,659**	**50,502**	**22.14**	**19.23**	**19.43**	**24.21**
3	프랑스	9,103	9,361	10,574	5.01	4.43	4.07	12.96
4	영국	10,120	12,549	10,147	5.57	5.93	3.90	-19.14
5	벨기에	5,618	9,052	9,584	3.09	4.28	3.69	5.88
6	스웨덴	5,273	4,834	5,896	2.90	2.29	2.27	21.97
7	네덜란드	6,380	7,155	5,510	3.51	3.38	2.12	-22.99
8	독일	2,279	2,612	3,110	1.25	1.24	1.20	19.06
9	미국	3,821	1,977	2,560	2.10	0.93	0.98	29.48
10	대만	1,786	1,372	1,902	0.98	0.65	0.73	38.68

※ 자료: Global Trade Atlas

▪ 경쟁동향

– 라미네이트 바닥재로도 잘 알려진 PVC 바닥재는 호주의 다양한 온 오프라인 바닥재 시장에서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기반을 두고 있는 라미넥스 오스트레일리아(Laminex Australia)는 호주 전역에 제조 공장을 보유하며 각종 상업 및 가정용 건축 자재와 바닥재, 인테리어 자재를 생산

▪ 유통구조

– 호주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PVC 바닥재는 건설장비 수입업체 즉, 현지 건축자재 에이전시 및 도소매 유통사를 통해 판매되며, 호주 건축 경기의 재개로 높은 가격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제조사들은 현지 건설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제품을 공급하기도 하며, 소규모 수출자는 온 오프라인 유통사를 통해 납품하는 경우가 많음

▪ 시사점

– 코로나19로 건축 경기가 크게 침체되었으나 유동 자산에 대한 불안감 고조, 안정적 자산인 부동산, 현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인테리어 개선에 대한 고객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기대

– 호주의 최신 바닥재 트렌드는 Sydney Build Expo, Sydney Home Show, Sydney Renovate & Build Home Show 와 같은 현지의 유력 전시회를 통해 파악이 가능

[콜롬비아] 콜롬비아 패션 산업

KOTRA 해외시장뉴스(2022. 5. 18.)

콜롬비아 패션산업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패션분야 구매활동 건수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 콜롬비아 패션 산업 동향

– 콜롬비아의 섬유 및 패션산업은 약 6,500개의 기업을 통해 약 100만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

– 특히 섬유 및 패션 제조업, 구매활동은 코로나19이전까지는 매년 성장세를 기록해 콜롬비아 제조업 성장을 견인하던 중요 산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장기간 봉쇄 및 이동제한 조치가 유지되면서 20년에 하락세를 기록하다 21년 2월 코로나19 백신의 영향으로 접종 완료자들의 야외활동 제약이 완화되면서 패션산업은 다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음.

[콜롬비아 연간 패션산업 판매액 변화]

(단위: 백만 달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587	6,151	6,636	5,171	7,039

※자료: Euromonitor (2022.3)

▪ 콜롬비아 패션시장 성장 2가지 요인

– 의류산업의 경우 전자상거래가 주를 이루는데,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점으로 패션상품 중 신발류의 경우 ‘21년 전체 구매활동의 25%가 전자상거래로 거래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의류의 경우 온라인 구매율이 전년대비 19.3% 증가한 것으로 조사

– 경제 재활성화 방침으로서 부가세 없는 날의 시행으로 의류 구매도 수요가 '20년부터 매년 3회씩 시행하는 '부가세 없는 날'이 맞물리며 의류의 소비가 일시적으로 급등하였으며, 이러한 재활성화 정책은 의류시장 뿐 아니라 가정용 전자제품, 전자기기, 학용품 등 다양한 생활품목의 일시적 증가를 야기

▪ 콜롬비아 섬유 수출입 동향

– 콜롬비아 섬유류(HS CODE 50류 ~ HS COE 61류까지 총합 기준) 수입액은 '21년 19억 3천만달러로 코로나가 한창 창궐하였던 전년 대비 59.2%의 성장률을 보임.

–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며, '22년 1월 수입액 기준 대중국 수입액이 100.9백만 달러로 총 수입액의 약 53%를 차지, 인도(9.9%), 미국(4.8%), 베트남(4.4%)의 순이며, 한국의 경우 약 1%로 전체 순위 중 14위를 차지

[콜롬비아 섬유류 수입액 변화]

(단위: 백만 달러)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월
1,613.2	1,214.8	1,933.8	190.5

주: hs code 50 ~ hs code 61까지 총합 기준

※자료: SICEX

– 반면 콜롬비아 섬유 수출액은 4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이 중 콜롬비아가 섬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22년 1월 기준 10.9백만 달러의 미국, 총 수출액 중 약 31%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에콰도르(18.7%), 멕시코(12.1%), 페루(8.6%)순임.

[콜롬비아 섬유류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달러)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월
406.2	292.8	435.5	35.9

주: hs code 50 ~ hs code 61까지 총합 기준

※자료: SICEX

▪ 전문가 코멘트

– 콜롬비아 의류패션산업협회 언론 담당자는 올해 콜롬비아 패션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 추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 이유로 시장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온라인 의류 거래의 성장 때문이라고 언급함.

– 특히 올해 온라인 의류 거래는 전년 대비 거래액이 8%이상 성장 및 완성 의류의 미국 수출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이에 따라 섬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임.

▪ 시사점

– 콜롬비아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2년 1월 콜롬비아 수출을 견인한 제조산업 분야는 화학, 철강, 의류, 섬유였으며, 의류와 섬유의 수출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4.5%, 23.7% 증가

– 이는 앞서 언급한 콜롬비아 의류 및 패션 섬유 시장 외에도 해외 수요도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주며, 총 인구수 대비 접종 비율 70%를 코앞에 두고 있어 시민들의 외부활동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콜롬비아 내 의류 소비 시장이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미국] 메타버스는 패션산업을 어떻게 바꿀까

KOTRA 해외시장뉴스(2022. 4. 22.)

디지털 트윈과 NFT 의류로 패션 중심을 해체하는 메타버스, 거래방식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메타버스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패션산업에도 적용되고 있음.
- 현재 메타버스는 게임 개발자와 팀을 이루는 고급 의류기업뿐만 아니라 대중적 브랜드까지 협력과 공략 대상이 되고 있으며, 패션산업에서도 메타버스는 모든 가능성을 내포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발렌시아가(Balenciaga)와 포트나이트(Fortnite), 랄프로렌(Ralph Lauren)과 로블록스(Roblox), 라코스테(Lacoste)와 마인크래프트(Minecraft)의 협업 사례

[로블록스에서 겨울용 의상을 출시한 랄프로렌]

※자료: 로블록스(roblox.com/ralphlauren)

■ **디지털 패션의 현재와 미래**

– 디지털 디자인은 아직 전통의류에 비해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패션업계는 메타버스를 잠재적 수익성이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관측

– 디지털 패션의 잠재 수익성은 게임산업의 부상에서 찾을 수 있는데, 게임 스킨, 액세서리 등을 판매해 부가수익을 발생시켜 일반적으로 영상과 음악을 합친 것보다 시장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

– 앞으로 시장의 관심은 소비자가 옷을 입고 쇼핑하고 패션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메타버스가 어떻게 바꿀지에 집중될 것이며,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가상의류나 액세서리를 구매하기 전에도 이를 입거나 착용해볼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고 있음.

[증강현실을 이용한 스냅챗의 의상 입어보기 기능(AR Try-on Tool)]

※자료: Snap Inc.(Snap.com)

■ **디지털 트윈과 NFT(Non-Fungible Token) 의류**

– 정교해진 AR/VR 기술로 현실과 디지털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소비자는 실제 자아와 가상 자아를 동시에 포괄하는 옷을 가질 수 있으며, 물리적 의복은 NFT로 인증될 수 있고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 수 있어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실생활에서 선호하는 옷을 디지털 세계로 가져와 바로 전환 가능

– NFT로 주조된 의류는 블록체인에 고유 데이터로 등록된 디지털 자산으로 가상 이미지를 구매한 사람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으며, 물리적 의류처럼 이를 거래하는 일도 발생

– NFT의 주요 전제는 이미지를 더 많이 볼수록 더 많은 문화적 가치가 발생하고 값비싸지며, NFT 원본의 파생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은 원본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그동안 사치품의 가장 큰 가치였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

- **패션 중심을 해체하는 메타버스**

– 메타버스는 패션 시스템의 전면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데, 주요 브랜드와 중심지를 완전히 우회하는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큼.

– 패션 제작자는 메타버스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컴퓨터와 디자인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디지털 패션을 제작할 수 있으며, 메타버스는 패션 디자이너가 상상력을 발휘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

[TED 콘퍼런스에서 디지털 패션에 대해 발표하는 갈라 브르나리치]

※자료: TED "The new reality of fashion is digital"(ted.com/talks)

- **메타버스와 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

– 맥킨지는 2020년 8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패션산업이 2030년까지 연간 27억 톤의 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업사이클링, 재고 및 재활용 직물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디지털 접근방식이 업계가 처한 지속 가능성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함.

– 메타버스에서 아바타용 웨어러블을 만드는 것은 소셜미디어에서 우리 의류의 존재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패스트 패션과 같은 물리적 낭비 없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 위한 가상 의류를 판매, 구입함으로써 패션산업과 거래 방식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

- **시사점: 한층 확장될 산업과 세계**

– 많은 소비자는 여전히 메타버스가 아니라 실제 착용하는 의복에서 만족감을 표현함에도 메타버스가 세상이 변화하는 흐름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음.

– 메타버스를 기존 패션산업과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소비자가 의류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넓히는 한단계 확장된 세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2022

05 부록

- KOTITI, 신규소식 안내
  - KOTITI 방글라데시법인 유니클로 시험기관 지정안내

- KOTITI, 신규사업 안내
  - 화학보호복 시험평가
  - 섬유제품 미세먼지 차단성능 시험평가
  - 3D 버츄얼 패션 서비스
  - 반려동물제품 인증제도
  - 방사선물질 제품인증 서비스
  - 금속장신구 알레르기 안전인증제도

KOTITI, 유니클로 시험검사기관 지정 안내

UNIQLO

KOTITI Bangladesh Laboratory

유니클로(UNIQLO) 시험검사기관 지정 안내

KOTITI 방글라데시법인이 유니클로 시험검사기관으로 신규 등록되었습니다.

시행일 | 2022년 4월 19일(화)

KOTITI 방글라데시 법인은 지난 2013년 10월 국내 시험검사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방글라데시에 진출하여 다양한 최첨단 시험설비를 보유, 다수의 우수 인재들을 채용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시험실을 구축하였습니다. 국내 섬유업체와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분석 품질검사, 환경유해물질 분석, Trouble Shooting 등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뢰성 높은 시험분석 업무를 근접 지원함으로써 섬유기업들의 생산 제품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및 한국 등의 지역으로 수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KOTITI Bangladesh Laboratory Contact Information]

Address | Natore Tower, 9th Floor, Plot No-32-D and 32-E , Road No-02, Sector No-03, Uttara Model Town, Dhaka, Bangladesh

Contact | 880-2-8956239, 8956240, 8960641

박봉규 책임연구원
bk_park@kr.kotiti-global.com

Hiroyuki Sadanaga
h-sadanaga@kaken.or.jp

Mayuko Fujita
fujita.mayuko@kaken.or.jp

Mustafizur Rahman
m.rahman@bd.kotitiglobal.com

Takeshi Ochi
t-ochi@kaken.or.jp

[KOTITI Head office(Seongnam) Contact Information]

Address | (1320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상대원동)

유형진 팀장
bk_park@kr.kotiti-global.com
02-3451-7074

강윤석 선임연구원
ys_kang@kr.kotiti-global.com
02-3451-7433

정혜연 주임연구원
hyjung@kr.kotiti-global.com
02-3451-7053

KOTITI Testing & Research Institute

KOTITI, 보호복 시험평가

미생물 보호복

- 인공혈액 침투저항성
- 박테리오파지 침투저항성
- 습식세균 침투저항성
- 건조미생물 침투저항성
- 액체에어로졸 침투저항성

국내 단독!!

물리적 및 역학

- 인장강도
- 인열강도
- 파열강도
- 굴곡저항
- 마모저항
- 린트발생량
- 표면저항
- 투습저항도
- 투습율
- 공기투과도

의료용 보호복

- 내수도
- 충격투과시험
- 인공혈액 침투저항성
- 박테리오파지 침투저항성

화학 보호복

- 화학물질 투과저항
- 액체 화학물질 침투저항
- 가압하 액체화학약품 침투저항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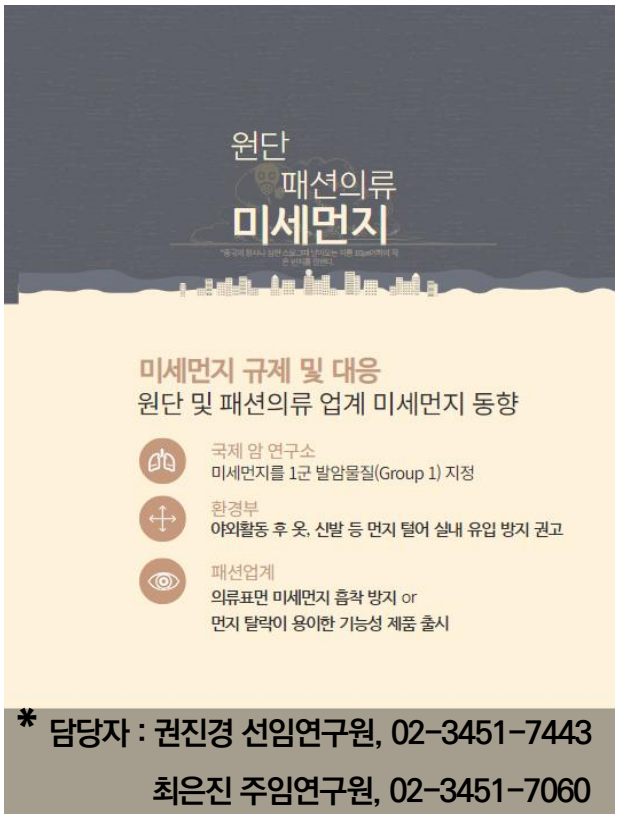
의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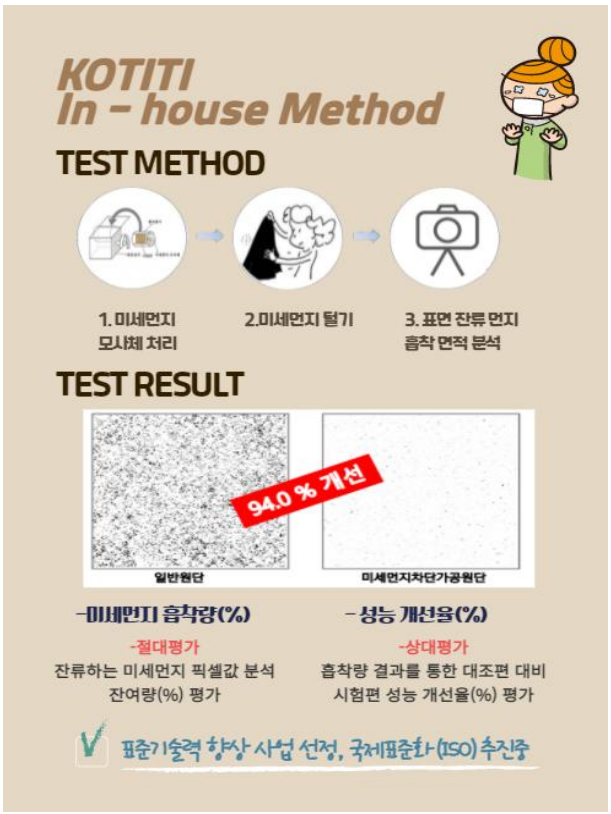
상담 ➤ 접수 ➤ 시험 ➤ 수납 ➤ 성적서 발급

담당자 문의

(국내) 정우진 팀장	02-3451-7111	wj_jung@kr.kotiti-global.com
(국내) 권진경 선임연구원	02-3451-7443	jk_kwon@kr.kotiti-global.com
(국내) 최은진 주임연구원	02-3451-7060	ejchoi@kr.kotiti-global.com
(해외) 유형진 팀장	02-3451-7074	hjyoo@kr.kotiti-global.com
(해외) 김창훈 주임연구원	02-3451-7061	kimch@kr.kotiti-glob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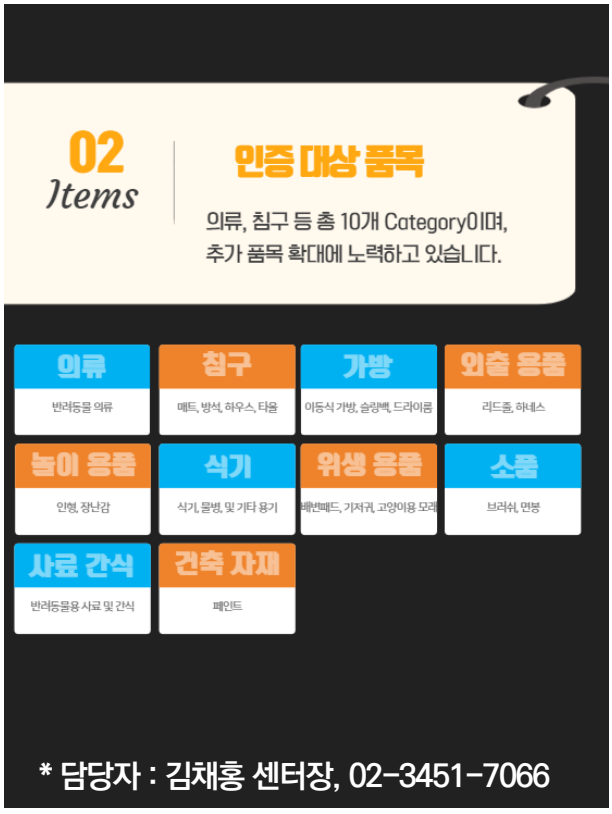
KOTITI, 섬유제품 미세먼지 차단성능 평가





KOTITI, 3D 버츄얼 패션 서비스

KOTITI, 반려동물제품 인증제도



KOTITI, 방사선물질 제품인증 서비스

배경

1급 발암물질인 라돈 및 기타 방사성물질 함유 제품 이슈가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생활제품의 방사성물질 관련 소비자 안전을 위해 관련 규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 및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품인증 서비스 제공**

내용

"생활밀착형 제품, 어린이 제품, 식품, 건축자재 대상"

ㅇ 인증 세부 내용

구분	대상	분석장비	소요기간	비고
시스템&제품인증	생활밀착형 제품, 어린이제품, 건축자재, 식품	감마핵종분석기, RAD7	45일	품목 추가당 50% 할인
제품인증	생활밀착형 제품, 어린이제품, 건축자재	감마핵종분석기, RAD7	40일	품목 추가당 50% 할인

침대, 매트, 화장품, 위생용품, 치약, 구중청량제, 물수건, 면봉, 필터, 화장지, 렌즈, 마스크, 의류, 양말, 완구, 반려동물식품, 반려동물용품, 건축자재, 식품 등

ㅇ 기관 인정사항 및 인증마크

<KOLAS 공인시험기관>

< 인증마크 >

절차

접수 > 시스템 평가 (시스템 인증의 경우) > 제품 평가 > 인증심의 > 인증서 발행

담당자 안내

이우람 파트장
Tel. (02) 3451-7364
E-mail. wrlee@kotiti.re.kr

전소담 주임연구원
Tel. (02) 3451-7337
E-mail. sd_jeon@kotiti.re.kr

KOTITI, 금속장신구 알레르기 안전인증

인증 배경

- 안전성 보증이 어려운 저가의 수입 금속장신구 유입, 지속적 불법·불량제품 적발로 인한 시장 유통질서의 혼탁 및 지속적 소비자 위해사례 발생
- 이에 금속장신구 제품 안전 문화 정착 및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금속장신구 알레르기 안전인증' 제도가 구축됨

'금속장신구 알레르기 안전인증'이란?

금속장신구 알레르기 안전인증(Allergy-Safe) 마크란? 금속장신구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민간인증마크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니켈(Ni) 용출량 등을 평가하여, 제품의 안전성 증명 및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인증 절차

인증 접수
- **인증신청서 접수 및 시료 전달**
- 금속장신구 안전인증 의뢰서 접수 (KOTITI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제품 심사
- **인증 시험 실시**
- 인증제품 시험 · 분석 (최소 7일 소요)

성적서 발송
- **성적서 발송**
- 우편 및 e-mail을 통한 성적서 발송 (분석비용 납부 이후 발급)

인증서 교부
- **인증서 교부**
- 인증 심의 후 인증서 발송

인증마크 사용안내
- **인증마크 사용안내**
- 마크 사용료 납부 및 인증협약
- **인증 라벨(Tag) 발송**

인증 대상품목

귀걸이(피어싱 포함), 반지, 목걸이, 팔찌, 발찌, 손목시계, 안경테, 기타 장식품 등 피부에 접촉하는 금속 제품

* 단, 금(함량이 58.5%이상), 은 제품 등 귀금속제품은 제외

구분	직접적 장기 접촉 제품	간접적 접촉 제품
안전 기준	**니켈** 0.2㎍/㎠/week **코발트** 0.2㎍/㎠/week	**니켈** 0.5㎍/㎠/week **코발트** 0.5㎍/㎠/week
대상 품목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발)찌, 시계, 안경테 등	손톱장식품, 헤어핀 등 기타 제품

인증 취득 이점

해당 인증을 통해 당사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함으로써,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규제 (부속서22 접촉성 금속 장신구) 대응 가능
2.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한 소비자 구매 유도
3. 제품 안전성 및 품질 보증에 따른 수출 경쟁력 확보

※ 인증 지원 사업 안내 ※

1. 사업 개요

국가기술표준원 소비자제품안전기반조성사업 지원으로 기업 대상 시험분석 및 '금속장신구 알레르기 안전인증' 무상 서비스 제공

2. 사업 목적

인증 보급, 확산 및 금속장신구 업계의 안전관리 인식 제고

3. 시범인증 기간 및 절차

- 기간 : 2021년 4월 1일 ~ 마감시
- 문의처 : KOTITI시험연구원 김미선 주임 (02-6191-6181)

4. 시범인증 대상 및 규모

인증 대상	온라인	오프라인
	금속장신구 전용쇼핑몰	금속장신구 관련 대/중견기업 및 협·단체
지원 규모	기업	제품
	10개社	100개品

관련연락처 Contacts

부서	담당자	업무	전화 / 이메일
섬유생활제품팀	권진경 선임연구원	국내 규제 및 시험 상담	7443 / jk_kwon
제품인증팀	김문경 책임연구원	KC 법령 및 규제 상담	7057 / mkkim
글로벌사업팀	강윤석 선임연구원	일본 규제 및 시험 상담	7433 / ys_kang
글로벌사업팀	이나현 주임연구원	미주, 유럽 규제 및 시험 상담	6167 / leenh
글로벌사업팀	정혜연 주임연구원	보고서 작성 및 편집	7078 / hyjung

◆ 전화 : 02-3451-

◆ 이메일 : @kr.kotiti-global.com

KOTITI시험연구원은 1961년 설립된 최초의 섬유시험연구기관으로서 소비재에 대한 연구개발, 시험분석, 품질검사, 교육훈련과 컨설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6개국, 12개 지역에 해외 법인과 사무소를 설립하고, 그 중 4개 지역에는 시험실을 운영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근접 지원과 반세기 동안 축적한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개요

1.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KOTITI시험연구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KOTITI시험연구원의 동의 없이 재생산, 배포,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본 보고서는 상업적 또는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 KOTITI시험연구원

홈페이지 www.kotiti-global.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2201kim

카카오톡 http://pf.kakao.com/_xkxeFxjxb

KOTITI Testing & Research Institute